

평창군 지역 뇌졸중 유병률 조사

조경숙, 김춘배, 박기호, 고성규, 김진백, 송하자, 박중구*

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,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,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*

1. 서론

뇌졸중은 한국인의 사인중 단일 질병으로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뇌졸중 유병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으며, 특히나 지역사회 단위의 뇌졸중 발생률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.

2. 연구방법

이 연구는 강원도 평창군을 대상으로 2000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보건사업담당자가 뇌졸중 발병의 과거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방문하여 면접 조사를 하였다. 그 결과 160명이 선정되었으며, 이들을 자기보고 뇌졸중 환자로 정의하였다. 그리고 이들이 이용하였던 보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의무기록 조사를 통해 최종 진단명이 뇌졸중 환자인 102명은 의사진단 뇌졸중 환자로, 그리고 CT/MRI 및 Minnesota 진단기준에 따라 뇌졸중 환자로 판명된 93명은 국제 진단기준 뇌졸중 환자로 정의하였다.

3. 연구결과

첫째, 뇌졸중 발생 당시 처음 방문한 보건 의료기관으로는 병원이 80명(50.0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의원 31명(19.4%), 의료원 26명(16.3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 주증상시 발현시부터 입원까지의 기간을 보면, 증상 발현 당일 즉시 입원한 경우가 39명(32.8%)으로 가장 많았고, 1일 후 24명(20.2%), 2-4일 후 14명(11.8%) 등이었다. 둘째, 평창군내 뇌졸중 유병률을 연령별로 보면, 자기보고의 경우 70대(2.0%), 80대(1.477%), 60대(1.350%), 50대(0.417%), 40대(0.095%) 등의 순이었고, 의사진단 유병률의 경우는 70대(1.730%), 80대(1.149%), 60대(1.134%), 50대(0.368%), 40대(0.076%) 등의 순이었으며, 국제 진단기준 유병률은 70대(1.514%), 60대(1.026%), 80대(0.985%), 50대(0.368%), 40대(0.076%) 등의 순으로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. 특히, 60대, 70대, 80대의 남자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여자의 유병률보다 높았다. 셋째, 영상검사에 의한 뇌졸중 아형의 종류를 살펴보면, 출혈이 동반되지 않은 경색 46명(56.1%), 뇌실질내 출혈 18명(22.0%), 출혈이 동반된 경색 8명(9.8%) 등이었으며, 자기보고 뇌졸중 환자중 뇌졸중이 아닌 환자의 질병은 신경계질환, 척추관련 질환, 고혈압 등이었다. 넷째, 뇌졸중 환자의 평균 이환기간은 자기보고 5.95년, 의사진단 4.69년, 국제 진단기준 4.44년이었으며, 뇌졸중 환자의 재발율은 자기보고 17명(14.3%), 의사진단 16명(15.7%), 국제 진단기준 15명(16.1%)이었다. 다섯째, 뇌졸중 발병자중 현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수를 보면, 자기보고, 의사진단, 국제 진단기준의 경우, 각각 148명(92.5%), 97명(95.1%), 90명(96.8%)이었다.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의 종류를 살펴보면, 세 집단 모두 편마비와 보행장애가 가장 많았다.

4. 결론 및 고찰

이 연구를 통하여 국가질병감시체계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자기보고에 의한 뇌졸중 유병률의 과다 계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, 향후 계속적인 사업을 통하여 뇌졸중 발생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